〈亂後紀行〉의 시적 전개를 통한 약포의 임진란 인식

김원준*

|| 차례 ||

- I. 들어가며
- II. 작시 의도 및 구성
- III. 시적 전개와 약포의 인식
- IV. 나오며 - <난후기행>의 시적 특징을 대신하여

【국문초록】

본 논문은 5인 162구로 구성된 <난후기행>을 대상으로 시적 특징과 임진란을 대하는 약포의 인식을 구명했다. 이를 위해 시간적 추이에 따라 시를 구성하고 시적 특징을 밝혔다. ‘임진란 발발과 전황인식’에서는 어가의 호종 과정을 통해서 역사의 현장과 전황인식에 따른 극복 방안을 살폈다. ‘분조의 호종과 위난 극복 의지’에서는 분조를 호종하는 과정에서 겪는 고초와 국난 극복을 위한 계획, 그리고 노신하의 회한에 담긴 의지를 밝혔다. ‘전황의 반전과 전장의 실상’은 계사년과 정유년의 전황을 보여준다. 특히 백성들 참상의 구체적 서술은 시를 통해 유일하며, 이는 시적화자의 서술 시각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난국 타개의 인물 표상’에서는 각 방면에서 가장 뛰어난 구국의 장수를 열거함으로써 임진란 극복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밝히고자 했다. ‘난후의 회억과 바람’은 임진란 종식 이후, 삶을 마감하는 시점에서 임진란을 회억하며 그에 따른 감회를 읊어 서사에서 정회로 시를 마무리하고 있다.

주제어: 약포, <난후기행>, <피난행록>, 서사, 임진란

*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조교수.

I. 들어가며

藥圃 鄭琢(1526-1605)은 67세의 고령에 임진왜란을 맞이했다. 이미 致仕했을 연배임에도 불구하고 內醫提調의 직책으로 한양에서 개성부, 그리고 평양을 거쳐 6월 영변부에 이르기까지 大駕를 호종했다. 영변에 이르러 분조가 결정되면서 전시 국사처리를 맡은 세지는 강제로 가도록 명받았다. 약포의 분조 호종은 왜노를 피해야 하는 힘겨운 이동의 연속이며 전황의 정확한 파악에 따른 냉철한 결단이 요구되는 긴장의 연속이다.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목도하게 되는 민중들의 비극적 참상은 약포 시의 주요한 제재가 되었다.

약포의 400여 수 가운데 임진란체험을 토로한 시¹⁾들이 상당수 있다. 시의 주된 내용은 왜적의 침탈로 인한 비극적 참상을 사실적·정서적 측면을 다루고 있다. 전황에 대한 사실적 상황 전개와 전장의 생생한 묘사는 약포 전쟁시의 한 특징이다. 또한 전쟁이 빚어낸 민생 도탄과 참혹한 죽음의 목도는 비애와 애통, 한탄과 원한, 애민과 바람 등으로 대변되는 시적 형상화를 이루었다. 약포의 전쟁 관련 시 37수 가운데 <亂後紀行>은 임진란 전 말을 5언 162구에 담아 전장의 실상을 여과없이 보여줄 뿐 아니라 곤핍의 여정 가운데서도 위난을 극복하기 위한 결연한 의지가 시 전체를 관류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난후기행>은 약포의 전쟁시 특징을 밝히는 데 최적의 대상이다.

약포 시와 관련한 기존 연구는 상당히 미진하다. 여운필은 “약포의 시는 시풍이나 기법상에 있어 두드러진 특징이 없으며, 자신만의 시세계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여 연구 부진의 이유를 밝혔다. 기존의 결과물²⁾을 보

1) 김원준, 『임란기 약포 시에 나타난 시적 형상화와 그 특징』, 『어문론총』72, 한국문학언어학회, 2017, 165쪽.

라도 일견 타당한 지적이다. 그러나 여운필의 주장처럼 약포의 시가 시풍이나 기법상에 있어 두드러진 특징이 부족하다고 해서 자신만의 시세계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말은 재고해볼 문제다. <난후기행>이나 <憫饑> 같은 시는 전개나 기법에 있어 약포만의 특징을 지닌 전쟁시라 할 만하다. 성당 풍의 시풍 전환을 모색하던 당시에 두보의 영향 하에 사실성에 입각한 시풍을 진작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본고는 <난후기행>을 대상으로 하여 작시 의도를 밝히고, 시적 전개와 내용 분석을 통해 임진란 전말에 대한 약포의 인식이 어떻게 시화되었으며, 그에 따른 약포의 시적 특징은 무엇인지 고구하고자 한다. 내용 분석을 위해 162구의 <난후기행>을 시간적 전개와 제재별 분류에 따라 단락 지을 것이다. 임진란이란 역사적 사건의 추이에 따라 각각의 단락이 함유하고 있는 의식적 면모를 연계하여 각 단락의 시적 특징을 밝힌다. 이를 근거로 단락간의 유기적 관계망 속에서 <난후기행>이 지닌 시적 가치를 밝혀내는 것으로 논의를 마무리한다.

II. 작시 의도 및 구성

임진란 초기에 약포는 대가와 분조를 호종하면서 일기체 형식의 실기를 남겼는데 『避難行錄』이 그것이다. 『피난행록』은 1592년 4월 30일부터

2) 약포의 시문학 관련 논문은 4편에 불과하다. 여운필, 『藥圃 鄭琢의 삶과 詩世界』, 『한국한시작가연구』6, 한국한시학회, 2001, 53-81쪽. 박명숙, 『藥圃 鄭琢 先生의 삶과 詩世界』, 『동양예학』31, 동양예학회, 2014, 135-179쪽. 朴槿魯, 『藥圃 鄭琢의 文學에 나타난 憂國意識 -상소활동과 임란체험의 시적 형상화를 중심으로』, 안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6.12. 1-173쪽. 김원준, 『임란기 약포 시에 나타난 시적 형상화와 그 특징』, 『어문론총』72, 한국문학언어학회, 2017, 160-189쪽.

1593년 1월 28일까지의 호종과정을 상·하로 나누어 기록했다. 행록에는 이동 경로, 날씨, 신하의 파직 및 서용, 전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가운데 선조에게 올린 狀啓가 행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그 내용 또한 임진란 초기의 실상을 증언해주고 있다. 장계에는 임진란 초기의 전세와 전황을 기초로 전란 극복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계획, 그리고 민심 수습과 인재 등용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국가 위기 극복을 위한 약포의 의지를 보여준다. 67세의 노령임에도 불구하고 임진란 초기의 사건들을 빼놓지 않고 기록으로 남겨놓으려 한 것은 역사인식의 발로라 하겠다.

『피난행록』이 전란 초기의 와류를 냉철하게 인식하고 기록한 264일간의 실기라면, <난후기행>은 삶의 마지막 여정에서 역사의 현장을 남기기 위해 임진란 전말을 5언 162로 구성된 장편시이다. <난후기행>의 말미에는 시를 완성하기까지의 간략한 경위가 덧붙여있다. 내용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내가 일찍이 난후의 행적을 초하였다. 기해년에 말미를 얻어 고향으로 돌아와 부모님의 분묘에 성묘하고, 곧이어 병 때문에 조정으로 돌아가지 못하였으며, 계묘년에 노쇠하고 병들어 벼슬을 사양하고 물러났다. 겨우 목숨을 연명하던 중에 문적을 뒤지다가 초한 기록을 얻었다. 그래서 이어서 노후의 일까지 적어 마침내 전말을 완성하게 되었으니, 이때 내 나이 여든이었다. 이에 아들 윤목에게 명하여 수정하고 위와 같이 베껴 쓰게 하였다.

을사년 중하 상순에 약포 병부가 양양 고자평의 망호당에서 쓰다.³⁾

부기를 통해 <난후기행>의 작시 과정을 더듬어 볼 수 있다. <난후기

3) 『藥圃集』 권1, <亂後行錄>, “余嘗草亂後行跡矣 歲己亥 受由歸省松楸 仍病未還朝 癸卯 以衰病致仕 頃於沈綿中閱文籍得草記 因續告老後事 遂成顛末 余時年八十也 爰命兒子允穆 修正寫出如右 青蛇仲夏上浣 藥圃病夫題于襄陽高子坪之望湖堂”

행>은 약포가 만년에 귀향한 후 완성됐지만 시의 대부분은 임진란 중에는 지은 것이다. 일찍이 난후의 행적을 초했다고 서두에서 밝혀 두었고, 계묘년(1603년)에 문적을 뒤지다가 초한 기록을 얻었다고 했다. 초한 기록에 노후의 일까지 덧붙태 마침내 그 전말이 완성됐다고 했는데 이때가 약포의 나이 여든(1605년)이다. 초한 기록을 찾은 후 2년 뒤에야 비로소 <난후기행>은 완성된 셈이다.

시의 구성상 다섯 단락⁴⁾으로 나눌 수 있는데, 다섯째 단락은 노후의 일을 덧붙태낸 것이므로 난후의 행적에서 제외된다. 첫째, 둘째, 셋째 단락은 각각 임진년, 계사년, 정유년의 사건을 다루고 있어 난후 행적을 연대기적으로 시화한 것이다. 넷째 단락이 다소 애매하나 ‘칠 년 만에 위엄이 두려워 물러가니’로 시작하고 있어 앞 단락과 연계선상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넷째 단락까지가 임진란의 행적에 해당한다. 따라서 <난후기행>은 작시 연대에 따라 두 갈래로 나뉜다. 1592-1598년까지 임진란 후의 사건을 서사한 한 갈래와 초고를 발견한 후 전말을 완성한 1603-1605년간의 한 갈래가 그것이다. 다음은 <난후기행>에 대한 약포의 작시 의도를 살펴본다.

부기의 내용만으로는 <난후기행>을 작시한 의도가 무엇인지 확실치 않으나 분명한 사실은 일찍이 난후의 행적을 초했다는 것이다. 시의 내용이 나 전개 상황을 볼 때 난후의 행적은 임진란 당시이며 전쟁이 치열했던 임진년(1592), 계사년(1593), 정유년(1597)을 다루고 있다. 특히 임진란 발발과 함께 어가와 분조의 호종 과정을 중심으로 보여주는 임진년의 행록은

4) 첫째 단락 : 1구-82구, 둘째 단락 : 83구-118구, 셋째 단락 : 119구-126구, 넷째 단락 : 127구-150구, 다섯째 단락 : 151구-162구. 첫째 단락은 분량과 내용을 보더라도 둘로 나누는 것이 적절하다. 대가와 분조의 호종이 나누어지는 시점이 분기점으로 본다면 대가의 호종 과정을 그린 1-42구와 분조의 호종 과정을 그린 43-82구로 나눌 수 있다.

82구로 이루어져 시 전체의 절반을 차지한다. 이듬해 계사년은 임진년과 달리 호종 과정의 시적 형상화 자리에 명군의 파병, 임금의 還京, 원접사의 역할 등을 36구로 담아냈다. 임진년과 계사년의 시적 전개는 촘촘한 서사성과 함께 각 사건에 따른 시적 화자의 정서가 이입되어 나타나고 있다. 반면 정유년의 시적 전개는 8구에 불과하며 임진년과 계사년과 달리 패전에 따른 피해 상황을 간명하게 언급하는 데 그쳤다. 여기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약포의 작시 의도 일단을 찾을 수 있다.

약포는 임진란과 관련하여 상당량의 시를 담겼다. 임진란 체험을 시화한 것이 대략 37수 있다. 이들 시의 중심 내용은 왜노의 침탈에 따른 비극적 참상과 국난극복을 위한 의지를 다루고 있어 사건에 따른 시적 화자의 實情을 주로 보여주고 있다. 반면 <난후기행>의 70%를 상회하는 첫째와 둘째 단락의 내용은 호종 과정에 따른 사건을 중심으로 전란의 생생한 현장을 기록하고 있어 시를 통해 역사적 사실을 구체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셋째 단락 또한 역사적 실상을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난후기행>은 역사적 인식에 기반한 서사성에 서정성이 가미되었다. 따라서 약포는 임진란의 실상을 시를 통해서 그 역사성과 함께 자신의 심경을 밝히고 싶었던 것이다. 마치 「피난행록」이 대가와 분조의 호종 과정을 일기체 형식으로 그날그날의 사건을 보여주려 했다면, <난후기행>은 사건의 바탕 위에 시적 화자의 갈등을 덧씌움으로써 비극적 역사 현장을 문학적으로 담아내곤 했던 것이다.

<난후기행>에서 약포의 작시 의도를 볼 수 있는 것으로 넷째 단락이 이에 해당한다. 넷째 단락인 127구-150구까지는 전란극복을 위해 구국의 길에 헌신한 장수들의 활약상을 보여준다. 김성일, 고경명, 조현, 곽재우, 권율, 이순신을 열거하고 위기의 조국을 위해 보여준 忠情, 死節, 義氣가 왜군을 물리칠 수 있는 추축이었음을 시화했다. 앞서의 시적 전개는 임진

년(1-82구), 계사년(83-118구), 정유년(119-126구)의 사건을 시화함으로써 연대기적 양상을 띤다. 전쟁을 서사화한 내용만 본다면 셋째 단락에서 마무리 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런데 약포는 일반 장편 전쟁시의 전개와 달리 연대기적 서술에 이어 전략 극복을 위해 헌신한 장수들의 활약상을 넷째 단락에 배치하고 있어 시적 구성을 통해 그의 의도를 읽을 수 있다. 즉 구국의 인물을 잊지 말자는 것이다. 약포가 구국의 인물을 배치한 것은 국난 극복을 위해 將材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문이다. 김덕령이나 이순신의 伸救⁵⁾를 위해 상소를 올려 적극적으로 구명한 사실이나 능력에 따라 인재를 배치해 줄 것을 꾸준히 요구한 장계를 본다면 얼마나 將材의 가치를 소중히 여겼는지를 알 수 있다. 그런 기저의식이 임진란 전사를 서사하는 데 발현된 것이다. 약포는 將材를 발굴하고 기량을 발휘할 수 있을 때 민족의 내재적 역량은 국난 극복을 이뤄낼 수 있다고 보았다.

마지막 단락인 151-162구는 역군은과 태평성대의 도래를 바라는 내용으로 시를 맺고 있어 다소 상투적이다. 따라서 서사적 전개나 문학적 성취로 매듭짓기에는 미흡하다. 그러나 여기서 고려해야 할 점은 시의 처음과 끝이 시간적 간격에 따른다는 것이다. 마지막 단락은 난후의 행적을 초한 것을 얻어서 노후의 일을 덧보탠 것이므로 삶의 종착점에서 10여 년 전의 임진란을 회상하며 지은 것이다. 장편전쟁시라는 점을 고려하면 마지막 단락은 논의에서 벗어났다고 볼 수 있지만, 위난의 시간을 온 몸으로 맞이해야 했던 노쇠한 유자의 눈에 결코 끝난 전쟁이 아닌 것이다. 비록 화를 면한 畵家에 대한 감사를 성운으로 돌리고 있지만 이는 전란의 상처를 딛고 태평한 시절을 갈구하는 이 나라 백성의 바람이다.

5) 권3 <金德齡獄事啓>, 권2 <論救李舜臣筭>

Ⅲ. 시적 전개와 약포의 인식

<난후기행>의 구성을 보면 다섯 단락으로 나눈 것이 일반적이다. 전문을 밝혀 연구한 여운필과 박근로⁶⁾의 경우도 그 구분이 동일하다. 이들의 단락 나눔은 사건을 중심으로 나뉘지는 것처럼 보이나 셋째 단락은 그 기준에서 어긋나고 있다. 계사년(1593년)과 정유년(1597년)의 사건을 하나로 묶을 경우 사건이 혼재되어 화제의 중심을 흐트릴 수 있다. 임진란을 배경으로 지은 장편시라는 점을 고려하면 비록 분량의 많고 적음에 따른 균형성의 문제는 있겠지만 시대별 화제를 고려한 연대기 순으로 나누는 것이 적절하다. 긴 단락의 경우 사건에 따라 소단락으로 나누어 시적 전개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임진란을 바라보는 약포의 인식을 정립하는 것이 유용하다. 앞 장에서 나눈 단락 구분에 따라 <난후기행>의 전개 과정을 살펴본다.

1. 임진란 발발과 전황 인식

이 절은 시적 화자가 임진년 파천 과정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겪은 것을 바탕으로 급박하게 돌아가는 전시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대응방안은 무엇인지 밝혔다. 시의 단락 구분을 연대순으로 나눈 까닭에 임진년간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은 첫째 단락은 전체 시의 절반에 해당하는 82구로 이루어졌다. 한 단락에 많은 서사를 담고 있어 서사의 추이에 따라 단락을 양분하여 어가의 호종과 분조의 호종으로 나눈다. 임진란 발

6) 여운필과 박근로의 단락 구분은 다음과 같다. 첫 단락은 1-42구, 둘째 단락은 43-82구, 셋째 단락은 83-130구, 넷째 단락은 131-150구, 다섯째 단락은 151-162구로, 이와 같은 단락 구분은 연대순보다는 사건을 중심으로 한 것이다.

발과 함께 영변까지 어가를 호종하는 과정을 다룬 1-42구는 서사적 상황에 따라 세분화하여 논의할 수 있다. 42구를 소단락 셋으로 나누어 임진란의 발발과 그에 따른 약포의 전황 인식과 극복 방안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1) 1-12구

皇明紀萬曆	명나라 만력 기원,
壬辰夏四月	임진년 여름 사월이라.
忽驚羽書急	전령의 급보에 깜짝 놀라니,
倭艘蔽海越	왜선이 바다를 뒤덮었다네.
一旬已踰嶺	열흘 만에 이미 조령을 넘어,
千里逼京關	천리 밖 서울까지 위협하네.
遂於念八日	드디어 스무여드레 날,
中夜乘輿發	한밤중에 어가가 도성을 떠났네.
臣僚半未從	신료들이 미처 절반도 따르지 못했는데,
何況備衛卒	하물며 호위하는 군졸을 갖추 수 있으랴.
我時提內醫	나는 이때 내의원 부제조로서,
所裹唯藥物	오직 약재만을 짐으로 꾸렸지.

첫째 소단락(1-12구)은 임진란 발발과 파천의 시작을 알리는 내용이다. 임진란 발발 시점을 알리며 시작하고 있다. 임진년 4월 13일에 왜군은 선봉대 약 2만을 병선 700척에 실어 부산포에 침입했다. 이후 20여만 명이 집결했으니 부산 앞바다를 왜선이 뒤덮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불과 이틀 만에 부산진성과 동래성이 함락되는 상황이었다. 전령의 급보가 시시각각으로 변할 정도로 왜군은 파죽지세로 한양을 향하고 있다. 동래의 함락을 접한 지 열흘 만에 조령을 넘어 한양을 위협하는 상황이다. 시의 첫 여섯 구는 임진란 발발과 함께 왜군의 거침없는 공세를 보여줌으로써 급박한 전황에 따른 시적 화자의 위협적인 심리 상황을 우회적으로 보여주

고 있다.

이후의 여섯 구는 전황이 불려온 고조된 긴장이 파천이란 다급한 현실적 상황과 맞물려 돌아감을 보여준다. 한양을 방어하기 위해 탄금대에서 배수진을 친 신립의 패배로 충주가 함락되자 평양으로 파천이 결정되었다. 갑작스런 파천 결정이라 신료와 군졸을 제대로 정비하지도 못한 채 한밤중에 도성을 떠났다. 내의원 부제조였던 시적 화자 또한 겨를 없이 약재만 황급히 챙겨 어가를 호종하게 된 것이다. 첫째 소단락은 기나긴 전쟁의 여정을 알리는 서막처럼 임진란의 발발과 파천 과정을 사건의 순차적으로 펼치는 가운데 시적 화자의 급박하고 불안한 심리상태가 묻어나 있다.

2) 13-26구

扈出西城門
中情徒憤鬱
天公又何事
大雨如注沐
我生丁此辰
臣當死主辱
朝晚到碧蹄
顛仆經泥滑
至尊猶未供
相視但慘怛
滂沱風浪湧
河伯亦造惡
凌晨始利涉
坡館趁朝旭

호종하여 서쪽 성문을 나옴에,
가슴속에는 울분만 가득했었지.
하느님은 또한 무슨 일로,
목욕물처럼 큰 비를 내리는가.
내 살면서 이런 때를 만났으니,
주군 욕되게 하니 신하는 죽어 마땅하네.
아침 늦게 벽제관에 도착하여,
엎어지고 자빠지며 진흙탕을 지났네.
지존께 아직 수라도 받들지 못하여,
서로 쳐다보면서 아파하고 슬퍼만 했네.
세찬 비에 풍랑까지 거세게 이니,
하백 또한 나쁜 짓을 일삼네.
새벽에 비로소 임진강을 건너니,
동과관에 아침 해가 떴네.

둘째 소단락(13-26구)은 파천의 과정에서 겪는慘怛한 심정을 보여주

고 있다. 여기는 4월 30일 새벽에 한성 서문을 빠져나와 碧蹄館을 거쳐 다음날 새벽에 임진강을 도강한 후에야 동파관에 이르렀다. 5월 1일 개성 부에 이르기까지 만 하루의 시간이지만 그 과정에서 겪는 신하로서의 고충과 비참함을 실상에 이입하고 있다. 왜군을 피해 몰래 파천해야 하는 상황은 시적 화자로 하여금 울분을 쌓기에 충분하다. 어가의 갈 길을 막기 위한인지, 시적 화자의 울분을 씻기 위한인지 천공은 큰 비를 내리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파천 과정을 더욱 힘들게 할 뿐이다.

큰 비로 인해 진흥탕 길을 힘겹게 걷는 것이야 신하로서 문제될 바 아니지만 수라를 받들지 못하는 불충에 이르러야 하는 상황이 실로 한탄스러울 뿐이다. 다른 방도가 없어 서로를 멀뚱히 바라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보니 그 참담함이야 형언키 어려운 것이다. 가까스로 임진강에 닿았지만 세찬 비에 거센 물결이 또 다시 갈 길을 막아서고 있다. 천공이 큰 비를 내려 힘들게 하더니 이제는 하백이 풍랑을 일으켜 심술을 부린다. 파천 과정이 실사 위주에서 시적 화자의 서정이 스며들어 토로하고 있다. 서사를 통해 파천 과정에서 겪은 험고의 사실적 표현 위에 시적 화자의 서정이 사건 속으로 전이되어 그 과정을 효과적으로 형상화했다.

3) 27-42구

是日入開城	이날 개성에 들어가,
君臣議恢復	군신들이 회복을 논의했네.
黃海平安兵	황해도와 평안도의 병사들로,
臨津大把截	임진강을 굳게 방어하자네.
小子宜興尸	소자가 주관했어야 하는데,
隄防痛自決	방어하다가 애통해하며 자결하였네.
惜哉劉克良	안타깝구나, 유극량이며,
果能奇計出	과연 기이한 계책을 잘 내었지만,

偏裨無所施	부장인지라 그 계책을 쓸 수 없어,
三軍見覆沒	삼군이 패전되고 말았네.
血戰死忠憤	혈전을 펴다가 충성의 격분으로 죽으니,
江波怒壯魄	강물도 장렬한 죽음에 성내어 흐르네.
兇鋒及淇水	왜적들이 평양까지 밀고 오니,
蒼黃無善策	황급하여 좋은 계책을 내지 못했네.
鐵甕稱天險	철옹성은 천연의 요새라 일컫지만,
城空誰拒敵	성이 비었으니 누가 적을 막겠는가.

셋째 소단락(27-42구)은 임진강 방어와 관련된 내용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겨를 없던 피난의 여정이 개성에 이르러서야 회복을 위한 군신의 논의가 시작되었다. 황해도와 평안도의 병사를 모아 임진강을 방어하지는 전략이다. 그러나 곧바로 임진강 방어선이 붕괴되어 개성까지 적의 수중에 들어가고 말았다. 개성의 함락은 곧 평양성의 방어와 직결된다. ‘天時は地利만 못 하고 地利는 人和만 못하다’고 했다. 평양성이 천연의 요새라 하나 지킬 병사가 없다면 철옹성은 말뿐이다. 시적 화자는 파천이라는 결과적 상황을 발생케 한 사태의 원인을 서사의 과정 속에서 규명하고 있다.

시 전개에 있어 특징적인 면은 사실에 대한 시적 화자의 인지나 전달의 효율성을 위해 관련 설명이 중간중간 배치되어 있다는 것이다. 임진강 방어의 실패 원인은 소자가 주관하지 못한 데 있다. 여기서 소자는 신할의 부장인 유극량을 지칭한다. 이런 논의는 전쟁의 패배가 어디에 있는지를 밝히기 위함이다. 실전 경험이 부족한 대장군 신할은 거저 후퇴하는 적군에 속아 북병의 공격을 받아 패전을 초래했다. 시적 화자는 임진강 방어의 실패 원인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다. 실전 경험이 풍부한 유극량의 계책을 받아들였다면 적의 기만 전술에 속아 임진강을 내주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애석함이 유극량을 위해 여섯 구를 할애해 그의 전사 이유를 밝히고

장렬한 죽음을 애도했다. 객관적 사건 사이에 주관적 정감의 표출과 함께 결과에 따른 원인을 분석함으로써 사실을 구체적으로 이해시키는 시적 전개를 보이고 있다.

38-42구는 27-37구까지의 결과를 보여준다. 왜군의 진격을 막기 위한 신료들의 전략 부족은 신할을 대장군으로 삼았으며, 신할의 실전 경험 부족은 잘못된 전술로 이어져 자신뿐만 아니라 유능한 부하 장수까지 전사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결국 임진강 방어선은 무너지게 되고 쉬 평양까지 진격하게 만든 꼴이 되었다. 이때 대가는 이미 평양성을 버리고 영변까지 피신한 상황이다. 약포는 <請堅守平壤啓>를 통해서 단호하게 평양성을 지켜야 한다고 청했다. 약포는 세 가지 이유를 들어 적의 침략에서 평양성을 수성할 수 있다고 했다. 첫째 천연의 요새라는 지리적 이점, 둘째 평양성을 지키려는 軍民들의 戰意, 셋째 군사 보강과 명군의 지원이다. 어가의 호종 가운데 드러나는 약포의 전황 인식과 극복 방안은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한 데서 나온 것이다. 객관적 사건에 대한 냉철한 판단은 다시 상황에 따른 정서가 이입되어 고뇌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2. 분조의 호종과 위난 극복 의지

이 절은 영변에 이르러 대가와 나뉘진 후 貳師의 직분으로 분조를 호종하는 과정에서 겪는 고초와 국난 극복을 위한 계책, 그리고 노신하의 회한을 담아내고 있다. 분조의 호종 과정을 다룬 43-82구는 내용상 셋으로 나눌 수 있다. 43-56구가 대가와 헤어져 분조의 호종 과정에서 겪는 피난의 험겨움을 토로했다면, 57-68구는 위난 극복을 위한 적극적 계책 도모와 그 좌절을 보여주고 있다. 69-82구는 위기 극복을 위한 구체적 대안 없이 왜적을 피해 이리저리 다녀야 하는 慙悔와 탄식의 장면이다.

1) 43-56구

大駕仍西狩
東宮付社稷
仁孝王世子
咸稱有聖德
播遷指東隅
顛沛窮山峽
老臣忝貳師
死生隨跋涉
惡溪褫我魄
險嶺折我足
水多與風壁
暝行兼露宿
困頓狼狽甚
嗟同我馬僕

대가가 서쪽으로 피난하면서,
동궁에게 사직을 부탁했네.
어질고 효성스러운 왕세자는,
모두가 성덕이 있다고 칭송했었지.
과천이 동쪽으로 향하면서,
깊은 산골짜기에서 었치락뒤치락하였네.
노신은 외람되게 세자이사의 직임을 띠어,
죽기 살기로 산 넘고 물 건너 따랐네.
험한 시냇물은 내 혼을 빼앗았고,
험한 길은 내 발을 부러뜨렸네.
수다와 풍벽,
어두운 밤에 길을 가며 노숙을 하였네.
심각한 곤돈과 낭패를 겪었으니,
아, 내 말과 종도 매한가지였네.

43구 이후부터는 분조를 호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을 중심으로 펼쳐진다. 대가가 평양성을 떠나 영변에 이르니 6월 13일이다. 다음날 의주로 길을 잡은 주상은 사직을 동궁에게 맡기며 강계로 가라고 했다. 의주나 강계는 행정구역상 평안북도⁷⁾에 속하지만 공간적 의미는 사뭇 다르다. 의주는 영변에서 서쪽 방향이며 압록강을 앞에 두었다면, 강계는 영변에서 보면 동쪽에 치우친 지역으로 함경남도를 가까이 두고 있다. 분조의 강계 결정은 왜군을 誅討하고 興復하는 책임을 분조에게 위임했다는 의미가 된다. 시적 화자가 세자인 광해군을 仁孝하고 聖德한 인물임을 밝힌 것은 위난 극복의 책임자로 내세우기 위해서다.

7) 지금은 행정 구역이 평안북도가 자강도와 둘로 나뉘어졌는데, 서쪽 지역인 의주는 평안북도에 동쪽인 강계는 자강도에 편입되었다.

이렇게 시작된 분조의 파천은 그 출발부터 쉽지 않다. 강계로 향하는 동북쪽은 높은 산세와 깊은 골, 그리고 험한 시냇물이 피난길을 막아서고 있다. 일흔에 가까운 시적 화자로서는 분조의 호종이 여간 힘든 것이 아니다. 혼이 빠질 듯한 험한 시냇물을 건너야 했고, 발이 부러질 듯한 험한 길의 연속이다. 오죽하면 지명이 水多고 風壁이었겠는가. 왜적을 피해 어두운 밤을 낮삼아 풍찬노숙의 길을 가야했던 困乏과 낭패의 여정은 그 자체만으로도 고통의 연속이 아닐 수 없다. 객관적 서사 중심의 전개가 분가 호종의 시작에서는 힘겨움을 주로운 주관적 감정 토로로 나가고 있다. 이는 단순히 노정의 힘겨움에 따른 개인적 토로를 밝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강계로의 고통스런 파천 과정을 시적 화자를 통해 객관화하려는 데 있다. ‘同我馬僕’을 덧붙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겠다. 비록 강계로의 파천 과정에서 지난한 고통을 토로했지만 이면에는 변함없는 노신하의 충정이 서려 있음을 볼 수 있다.

2) 57-68구

共誓扶天傾
協圖中興業
或言浮海路
江都達舟楫
撫綏畿甸內
兩湖兵馬集
猛將練勁卒
乘幾一大捷
此計誠爲優
群議猶不協
但作楚囚悲
四顧無人色

기울어진 사직을 부축하기로 함께 맹세하고,
왕업 중흥하기를 협심하여 도모했네.
혹자는 ‘바닷길에 배를 띄워,
배를 타고 강화도에 가네.
기전 안의 백성들을 어루만지며,
호남과 호서의 병사들을 모으네.
용맹한 장수가 강한 병졸들을 훈련시켜,
기회를 틈타 크게 한 번 이기자’고 했었지.
이 계획이 진실로 훌륭하였으나,
못 의논은 오히려 동조하지 않았네.
다만 초나라 죄수의 슬픔만 자아낼 뿐,
사면을 둘러보아도 산 사람의 기색이 없네.

강계로의 파천 과정은 험거운 일이지만 誅討와 興復의 막중한 책임을 진 분조이다. 熙川郡을 거쳐 강계로 가는 도중 關北[함경도]에 왜적이 왔다는 말에 東路를 따라 남하하여 寧遠-孟山-陽德-谷山을 거쳐 강원도 伊川에 이르렀다.⁸⁾ 이천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곳이고 조정의 명을 전달하기 용이한 지역이다. 이천에 이르러 배행 신하들은 사직을 받들고 왕업을 증흥하기 위해 협심하여 계책을 내놓았다. 다시 강화도로 옮기자는 것이다. 강화도 파천의 궁극적 이유는 乘機大捷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강화도는 畿內와 가까워 백성들을 위로할 수 있고, 전라도와 충청도의 병사를 모아 猛將이 練兵할 수 있는 지리적 여건을 갖추었다.

시적 화자는 대승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훌륭한 계책임을 강조했지만 결국 동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마치 쫓나라가 양자강 이남으로 천도했을 때의 상황⁹⁾과 유사하게 본 것이다. 쫓겨 달아난 처지에 한가하게 술만 마시고는 지금의 처지를 탄식만 하는 유약한 신료들을 질책한 王導의 의지가 필요한 시점으로 보았다. 강화도로의 파천은 대첩의 기회다. 언제까지 楚囚對泣하듯 마주보며 눈물만 흘릴 것인가 힐책하고 있다. 마치 패배의 식에 빠져 전의를 상실한 신료들에 대한 노신하의 노기가 서린 듯한 강변이다. 강화도는 긴 몽고와의 싸움에서 버틸 수 있었던 구심점 역할을 했던 상징적 거점지다. 前朝가 끝까지 몽고에 굴하지 않고 결사항쟁 했듯이 그

8) 『피난행록』 7월 27일 조에 이천으로 간 이유가 적시되어 있다. ①강계는 한쪽 구석에 있어 조정의 명이 사방으로 통하지 않아서, 조정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함. ②위기를 피하고 안전한 곳으로 나아감. ③적병들이 이미 철령을 넘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천에 이룸.

9) 『世說新語』 “東晉南渡以後，每到空間好日子，士族們就相邀到新亭飲宴，周侯坐在中間感嘆的說‘風景是很不錯，但卻和北方故鄉的完全不同哪!’大家聽了都相對流淚，丞相王導看了非常生氣站起來說‘我們應該同心協力光復山河才是，怎可以像做了楚囚一樣相對而泣!’”

웅혼한 기운을 되살려 乘機大捷하고자 하는 노신하의 豪氣가 드러난다.

3) 69-82구

瘼矣向何處	병든 이 몸 어디로 가야 하나,
無東西南北	동서남북 갈 곳이 없었네.
發言徒盈庭	발언만 뜰에 가득할 뿐이니,
那能辨惶惑	어찌 두려움과 의혹을 분별할 수 있으리오.
一朔伊川留	한 달 동안 이천에 머물렀고,
三秋成府閣	가을 세 달 동안 성천부에서 보냈네.
滿目山河羞	눈에 가득한 산하에 부끄러웠고,
回首肝肺熱	고개 돌리니 가슴속이 화끈거렸네.
偷生淹歲月	구차히 살면서 세월을 보내노라니,
北風吹素髮	북풍이 하얀 머리털에 불어댔네.
龍岡入山城	용강에서 산성으로 들어가니,
慘凍士馬骨	병사와 말의 뼈가 참혹하게 얼어 있었네.
此地不可住	이곳에선 머무를 수 없어서,
還向寧邊堞	다시 영변성으로 향했네.

3)은 승기대첩을 위한 논의가 무산되자 희망은 사라지고 다시 기약 없이 여정이 시작되는 장면이다. 희망을 상실한 늙고 병든 자신의 물골과 대책도 대안도 없이 주견만 크게 소리 내는 신료들에게서 현재 분조의 모습을 보여주는 듯하다. 어디로 갈 지 몰라 이천에서 한 달 머물렀다가 다시 成川府로 옮겨 가을을 보냈다. 이천과 성천에서 머무는 기간은 자괴감의 연속이다. 산하를 대하는 것이 부끄러워 고개를 돌려보지만 오히려 가슴 속 깊은 곳에서 이는 불덩이에 어찌할 수 없다. 구차하고 헛되이 보낸 삶의 회한이 北風에 素髮로 조응하고 있다.

성천에서 다시 길을 열어 안주를 거쳐 숙천을 지나 용강에 이르니 동짓

달 추위에 참혹하게 얼어 죽은 병사와 말들을 목도한다. 다시 영변성을 향해 길을 재촉하고 있다. 참혹한 전쟁터의 한 장면과 무심코 재촉하는 발걸음은 다양한 詩情을 떠올리게 한다. 분명 현실을 외면하려는 의도는 아닐 것이다. 시적 화자가 이천과 성천에서 보낸 가을 동안 전세를 역전하고 빼앗긴 성을 회복하기 위해 전세의 정확한 판단을 근거로 각종 계책¹⁰⁾을 올렸다. 그런 점에서 왜적을 토벌하여 강토를 회복해야 할 분조의 사명을 다하지 못한 데 대한 자괴감의 발로인 것이다. 오히려 그러한 무심함 속에는 깊은 주름이 패인 노신하의 충정을 엿볼 수 있다.

3. 전황의 반전과 전장의 실상

1-82구까지를 대상으로 한 1), 2)절은 1592년의 행적으로 임진란 발발과 대가와 분조의 파천 과정을 밝혔다. 시적 화자의 구도 하에 사실성에 입각한 서사적 흐름과 목도이문한 경험을 바탕으로 서정성을 함께 보여주었다. 3)절은 해가 바뀐 계사년(1593)의 사건과 시간을 뛰어넘어 정유재란이 있었던 1597년의 사건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83-118구까지가 계사년의 내용이고, 119-126구까지는 정유년의 내용이다. 연도에 따라 절을 나누는 것이 적절하지만 정유년의 내용이 빈약한 관계로 계사년과 합하여 '전황의 반전과 전장의 실상'을 중심으로 논하고자 한다.

10) 『피난행록』에 수록된 약포의 행적을 보면, 이천과 성천에서 머무는 동안 정확한 전세 판단을 통한 대응방안을 장계로 올렸다. 전세를 역전하기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군량미 확보, 權差를 통한 안정, 軍情을 위한 포상, 시시각각의 전황에 따른 대응 전략 제시, 사기 진작을 위해 패군한 죄에 관대함, 적군의 동향 파악, 유랑하는 백성의 상황, 전황을 통한 공격 시점과 과감한 공격 주장 등을 통해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전략 방안을 모색했다.

1) 83-96구

歲序改新正
 賊勢成摧壓
 使臣哭皇庭
 皇帝嗟不歇
 按劍命虎臣
 出師宜薄伐
 智勇李將軍
 精忠貫白日
 砲鼓震天地
 攙槍走嚴律
 勢若驅雷師
 霹靂盪賊窟
 穆穆聖天子
 東藩再造活

한 해가 가고 새해가 오면서,
 적의 세력이 꺾이게 되었네.
 사신이 황제에게 통곡하자,
 황제는 탄식을 그치지 않았네.
 검을 어루만지며 무신에게 명하고,
 군사를 보내어 정벌하게 하였네.
 지혜롭고 용맹한 이장군,
 그 순수한 충성이 태양을 꿰뚫네.
 포환과 북소리 천지를 진동하고,
 찌르고 부딪치며 엄한 규율로 치달렸네.
 기세가 번개를 모는 군사 같아,
 벼락 치듯 왜적의 소굴을 소탕했네.
 성대하신 천자의 성스러움으로,
 조선이 다시 살아나게 되었네.

시는 계사년의 시작을 알림으로써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1차 명군의 파병이 실패¹¹⁾로 끝나자, 그 해 12월에 제독 이여송이 4만여 명의 병력을 이끌고 왔다. 시적 화자는 조선을 깊이 헤아려 제독 이여송을 보내 준 명황에게 再造之恩을 표해 신하로서 진정한 감사를 전하고 있다. 智勇과 精忠을 갖춘 明將 이여송의 칭송에 이어 사기충천하고 일사분란한 軍容을 보여줌으로써 전세의 반전을 예고했다. 賊窟의 소탕 결과가 1월 9일 조명연합군에 의한 평양성 탈환임을 말하고 있다. 북으로 북으로 피신해야만 했던 어가를 생각할 때 평양성 회복은 조선의 再活인 셈이다. 이 모든

11) 명군의 1차 파병은 1592년 7월 초에 遼陽副總兵 祖承訓이 4,000이 못되는 병력을 이끌고 왔다. 이에 조명연합군이 결성되어 평양성을 공격했지만 실패로 그치고 말았다.

것은 위엄 서린 명황의 성스러움에서 비롯된 것임을 밝혀 再造之恩을 말하고 있다. 1)에서 보여주는 시적 흐름은 수세적이었던 전세가 명군의 원조로 상황이 역전되는 장면이다. 그런 까닭에 강건하고 호기로운 시어들이 곳곳에 포진하고 있다.

2) 97-106구

餘孽不遠遁	남은 적들 멀리 달아나지 아니하고,
神京猶拒轍	서울에서 오히려 대항하였네.
鶴駕還大朝	학가를 호종하다가 대조로 돌아가,
承命非再一	명을 받든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네.
衝冒事驅馳	위험을 무릅쓰고 말을 몰아가니,
不雨卽風雪	비가 오지 않으면 풍설이 쳤었네.
賊悉退南徼	적들이 모두 남녘으로 물러가니,
迺在孟夏末	계절은 이제 초여름의 끝이었네.
車駕還京都	임금의 수레가 서울로 돌아오니,
歲暮初冬節	세모의 초겨울이었네.

1)의 시적 전개가 明皇과 明將의 칭송으로 이어져 서사성이 약화되었지만 명군의 파병과 평양성 회복이란 일련의 사건이 그 중심에 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2)는 1)이후에 일어난 사건을 중심으로 시가 전개된다. 사건의 전개는 두 방향으로 나뉘어져 있다. 전세의 전환에 따른 史的 측면과 시적 화자의 역할에 따른 私的 측면이다. 둘의 관계가 혼재되어 있으면서도 시간은 순차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평양성의 탈환에 고무된 연합군이 남진에 나서지만 벽제관에서 왜군에 의해 패퇴한 史的 사건을 언급한 후 시적 화자의 개인적 역할이 이어서 전개된다. 시적 화자는 1월 19일 동궁을 모시고 定州에서 대가를 맞아 배

알한 후 영위사의 명을 받들어 악천후와 위험을 무릅쓰고 25일에 의주 龍川의 良策館에서 明將 經略 宋應昌을 맞이하여 위로한다. 이어서 다시 사적 사건의 전개로 나간다. 4월에 명군 심유경과 왜군 고시니의 강화회담 타결로 왜군이 전면 퇴각하자 조명연합군이 서울에 입성하고 이후 10월 들어 대가가 서울로 환도하기에 이른다. 2)는 평양성 탈환 이후를 개인적 서사와 史的 서사를 하나의 구도 하에 묶어 계사년 당대의 상황을 밝혀 놓았다.

3) 107-118구

世子撫兩湖	세자께서는 호서와 호남을 위무하려고,
迢迢向遠絕	아득히 먼 절역으로 향하셨네.
我時自龍灣	나는 이때 용만에서,
追扈過京國	뒤를 따라 서울을 지나게 되었네.
積尸成丘山	쌓인 시체가 산더미를 이루었고,
餓殍相顛覆	굶어 죽은 송장이 서로 뒤엎혔네.
宮殿慘蒿萊	궁전은 처참하게 쓸대만 무성하여,
至尊寓私屋	지존께선 사가에서 우거하셨네.
吞聲登前途	울음을 삼키며 길에 오르려니,
愴怳迷所適	어이없어 갈 곳을 헤매었네.
自慙空逐隊	부질없이 대열을 따라다니며,
竟乏涓埃益	끝내 작은 보탬도 없어 부끄러웠네.

3)은 대가의 환도 후의 일을 시화한 것이다. 호서와 호남을 위무하기 위해 세지는 다시 전주로 향했고 시적 화자는 8월 용만에서 明將을 전송하는 전별사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10월 명장을 전송한 후 이어서 임시로 원집사에 차출되었다가 평산부에서 이항복을 만나 임무를 교대한다. 임무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토산에 도착하니 동궁을 따라 남하하라는

명을 받게 되어 급히 전주로 향하는¹²⁾ 과정을 짧은 네 구(107-110구) 안에 응축되었다.

111-116구는 세자를 뒤따라 막 서울을 떠나 전주로 향하는 지점에서 목도한 참상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난후기행>은 임진란과 시적 화자를 둘러싼 난중의 사실을 시화한 까닭에 전란의 참상을 묘사하는 경우가 드물다.¹³⁾ 임진란이 발발한 후 어느새 1년 반이란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전쟁 중이다. 이 장면은 전주로 가기 위해 서울을 지나면서 펼쳐진 상황을 묘사한 것이다. 백성들의 시신이 참혹했던 전쟁의 상흔을 대변하고 있다. 어딜 가나 시체가 더미를 이루고 있으며 그 가운데는 아사한 백성들의 수효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積屍’, ‘餓殍’로 대변되는 백성들의 참상에 이어 임금의 궁핍한 상황을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다. 쑥대만 무성하게 자란 무너진 궁전의 묘사는 갈 곳 없는 임금의 처지를 대변한다. 상하 모두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다. 관인으로서 신하로서 어느 것 하나도 자신의 역할을 하지 못한 데 대한 무력감과 자괴감을 드러내어 심중의 참담함으로 마무리했다.

4) 119-126구

天兵再出征	천병이 재차 출정하였으나,
胡爲乎敗績	어찌다 패하였는가.
坐見蜂蠆衆	앉아서 벌과 전갈의 무리에게 당해,

12) 이를 보충하는 내용이 110구에 이어서 설명되어 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東宮已先下全州 余自義州餞天將 因假差遠接使 陪司憲天使 到黃州 始逢遠接使李恒福 遂入免山俟命 急向全州”

13) 임란기의 약포 시 가운데 시체에 ‘憫’이 포함된 시 5제 11수가 있는데 이들 시는 전란의 참상을 목도한 후 그 비극적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특히 5연 30구의 <憫饑古風>은 생존을 위한 유민들의 처절한 몸부림이 잘 드러난다.

湖嶺大充斥	전라도와 경상도가 큰 피해를 입었네.
殘害那忍說	잔혹한 피해를 어찌 차마 말 하리오,
所過皆波血	지나가는 곳마다 모두 피바다였네.
國儲藉湖南	나라의 비축미를 호남에 의지하였으나,
于今亦蕩竭	지금은 역시 탕진되었네.

4)는 시간을 뛰어넘어 계사년(1593)에서 정유재란이 일어난 정유년(1597)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서울 회복과 조명연합군의 전열 정비로 이후 3년은 전쟁이 소강상태로 국지전에 머물렀다. 그러나 왜군은 1597년 2월 히테요시의 전면 재침 명령이 떨어지자 약 15만의 대군을 이끌고 침략했다. 5월에 楊元을 摠兵으로 하여 명군 7만이 재투입되었지만 패전¹⁴⁾하여 전라·경상은 다시 왜군에게 유린을 당하게 되었다. 121-126구는 왜군의 재침에 따른 피해 상황을 간결하게 정리했으나 이면에 펼쳐졌을 殘害와 波血은 차마 말할 수 없는 것으로 맺음으로써 그 참혹함¹⁵⁾은 독자에게 맡겨 놓았다. 시적 화자는 정유재란의 패전에 따른 피해 상황을 간결하게 정리했지만 그 이면에는 당시의 비극적 상황을 연상케 할 수 있는 시어의 배치되었다. 이상 1)-4)를 통해 계사년과 정유년 간에 펼쳐진 전황의 반전과 전장의 실상을 고구했다.

4. 난국 타개의 인물 표상

127구-150구로 구성된 넷째 절은 7년간의 전쟁을 종식하고 강토와 백

14) 120구 이어 그 상황을 밝혔다. “丁酉秋 楊摠兵元失全州 冬 楊經理鎬先捷於島山 後敗績” 8월 25일에는 전주성이 함락되고, 12월에는 조명연합군이 울산의 도산성을 총공격했으나 실패하고 퇴각했다.

15) 이테요시는 6월 진군하는 왜군에게 코베기 명령을 전달했다. 이런 점이 그 참혹함의 일면이 되게끔.

성이 회복한 데 대한 감사의 마음과 전란 극복의 주축이었던 이 땅의 장수를 기리는 내용이다. 셋째 절까지의 시적 전개는 임진란의 진행과정과 맞물려 역사적 서사와 그에 따른 시적 화자의 서사 및 정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연대기적 서술방식을 갖추었다. 넷째 절은 위난의 조선을 구해준 명 황에 대한 感恩을 4구로 간단하게 밝히고 나머지 20구에서는 김성일, 고경명, 조헌, 곽재우, 권율, 이순신을 열거하여 각 방면에서 가장 뛰어난 활약을 보인 구국의 장수를 열거했다. 임진란을 연대기적 서술방식으로 전개했다가 구국의 인물을 제시하고 있어 앞 절과는 다른 전개 양상을 띤다.

127-150구

七載畏威去	칠 년 만에 위엄이 두려워 물러가니,
八路還圖籍	팔도가 지도와 호적을 되찾게 되었네.
寸草東民心	보잘것없는 우리 백성의 마음으론,
難報皇上德	황제의 큰 덕에 보답하기 어렵네.
我朝二三子	우리 조정의 몇몇 분들이,
妖氛庶清廓	요사한 분위기를 깨끗이 씻었네.
吾儕金士純 誠一	나의 동료 김성일은,
最是多宣力	힘써 주선한 일 가장 많았다네.
堂堂儒將氣	당당한 선비 장수의 기상은,
凜凜爭秋色	늠름함이 가을별과 겨루었지.
草檄高而順 敬命	격문을 지은 고경명은,
忠骨飄溝壑	충성스러운 죽음으로 구학에 떨어졌네.
死節趙大夫 憲	절개를 지켜 죽은 조헌은,
糾合多斬賊	의병을 규합하여 적을 많이 베었네.
沈機郭男兒 再祐	지모가 깊은 곽재우는,
義旗何輝赫	의로운 깃발이 얼마나 빛났던가.
幸州快獻捷	행주에서 통쾌하게 승첩한,

奇功屬權慄	기이한 공적은 권율의 것이네.
闔帥李舜臣	대장 이순신은,
賊帆大摧折	왜적의 배를 크게 쳐부수었네.
處處輸筋力	곳곳에서 힘을 기울이고,
區區罄衷曲	구역 구역에서 충심을 다했네.
終然無一人	끝내 한 사람도 남지 못했지만,
如風后力牧	풍후와 역목 같은 분들이었네.

넷째 절은 7년의 긴 전쟁을 종식할 수 있게 한 명황에 대한 感恩과 구국의 인물들을 기리고 있다. 시적 화자는 왜군을 물리쳐 강토를 회복하고 백성들을 안정시킬 수 있었던 공을 명황의 덕으로 돌렸다. 전황 반전의 지대한 공이 명황과 명군에 있음을 상기시킨다는 점에서 사대적 시각으로 볼 수 있지만, 왜군의 전력과 전세 판단에 대한 객관적 시각에 따른 결과라 하겠다. 『피난행록』 곳곳에서 약포는 공격을 지연하는 명군에게 시기를 놓치지 말고 진군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그리고 <書示胡相公>(권6)이나 <與明儒胡煥>(권2)에서는 胡煥에게 병사의 증원을 역설할 뿐만 아니라 파병시에 왜군과의 전투에 능한 남방인인 四川과 浙州의 병사를 보내 줄 것을 요청했다.¹⁶⁾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위난의 조선을 구하는 데 있어 큰 역할을 담당할 명황이나 명장에 대한 칭송을 사대적 시각에 앞서 전황의 객관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를 증명하듯 구국의 인물들에 대한 나열은 위난 극복의 주체가 어디에 있는지를 명백하게 보여주려는 시적 화자의 의지를 담고 있다.

명의 원군이 전쟁 종식의 한 축을 담당했지만 그 중심축에는 義起한 이 땅의 민중들과 忠情의 장수 및 휘하 병사들이 있다. 시적 화자는 각 방면

16) 권2 <與明儒胡煥> “添兵之事，固當汲汲。而其中川浙之兵爲上，遼廣之兵次之”

의 역할에 따라 구국의 중심이 된 장수 6인을 기렸다. 선비의 기상을 보여 준 儒將 김성일을 먼저 들었다. 자신의 오보로 임진란을 불러온 장본인으로 각인되어 파직되었지만 招諭使가 되어 의병과 관군간의 협력을 도모케 했다. 이후 관찰사와 순찰사로 임명되어 전장의 가운데서 의병을 규합하고 향전을 독려했다. 이런 그의 공적을 기려 늙름한 유장의 기상을 지닌 인물로 표상화한 것이다.

다음은 의병장으로 향전하다 전사한 고경명과 조헌을 들었다. 두 장수는 임진란 전에 관직에서 물러났다가 임진란이 발발하자 의병을 규합하여 왜군과 대적했다. 고경명은 격문을 돌려 6천여 명의 의병을 모아 관군과 합세하여 금산에서 왜군과 맞서 싸우다 전사했다. 조헌 또한 의병 1,600명을 일으켜 영규의 승군과 합세해 청주성을 탈환하는 공적을 세웠다. 이후 700명의 의병으로 금산전투에서 분전하다가 의병들과 함께 모두 전사했다. 시적 화자는 忠骨과 死節의 인물로 칭하여 그들을 기렸다. 이어 淸재우를 들었다. 처사로 살던 중에 임진란이 발발하자 義旗 아래 의병을 모아 그 선두에 서서 전장 곳곳에서 왜군을 무찌른 데 대한 공적을 기렸다.

의병장에 이어 임진란의 표상이 될 수 있는 수륙의 두 장수인 권율과 이순신의 공적을 밝혔다. 육지에는 나라의 운명을 걸고 행주산성에서 배수진을 치고 왜군을 통쾌하게 물리친 권율이 있다. 의병과 승병을 중심으로 채 1만이 되지 않는 병력으로 7개 부대 3만이 넘는 왜군을 물리친 그의 공적을 기이하다고 추앙했다. 육지에서 통쾌한 승첩과 다대한 공을 세운 권율이 있다면 바다엔 制海權을 장악하여 대침을 거둔 이순신이 있다. 이순신의 제해권은 왜군의 해상보급로를 차단함으로써 일본을 패퇴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6인의 구국인물은 儒將, 義兵將, 水陸의 將帥를 대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들 구국인물은 임진왜란 3대 대침을 이끈 주역들로 왜선 60척을

섬멸한 이순신의 한산도 대첩, 石戰으로 유명한 권율의 행주대첩, 곽재우의 함세로 왜군 3만을 물리친 진주성 대첩을 이루었다. 구국 인물들의 자취에는 그들의 충심과 헌신이 따르지 않은 곳이 없다. 그런 까닭에 이들을 기려 황제 헌원씨의 신하로 뛰어난 재상과 장수였던 풍후와 역목에 비유했다. 이렇게 볼 때 <난후기행>은 전쟁의 한 면을 중심으로 펼친 전쟁시를 뛰어넘고 있다. 임란기 전말의 실상에 대한 연대기적 서술과 사실적 기술, 그리고 구국 인물의 열거는 임란에 대한 작가의 세계관이 그대로 투영되어 나타난 것이다.

5. 난후의 회억과 바람

난후의 회억과 바람을 시화한 151구-162구는 앞서의 시와는 달리 임진란 종식 후 고향으로 돌아와서 지었다. 넷째 절까지의 시구(1-150구)는 1599년(74세) 9월 귀향하기 전에 지은 것이다.¹⁷⁾ 따라서 임진란을 서사화한 것은 4절까지이며, 마지막 다섯째 절의 시구는 삶을 마감하는 시점에서 임진란을 회억하며 그에 따른 감회를 읊은 것이다. 임진란의 발발과 함께 작시된 <난후기행>은 1603년(78세)에 난후의 행적을 초한 것을 얻어 노후의 일까지 적어 그 전말을 완성(1605년, 80세)함으로써 약포 삶의 마감과 함께 그 대단원을 마감했다.

17) 넷째 절에 해당하는 127-150구의 작시 연대를 단언하기는 어렵다. 난후의 행적을 초한 것을 얻어 노후의 일을 더했다는 진술이나, 셋째 절까지의 시구 연결을 고려할 때 넷째 절의 시구는 임진란 종식 직후에 지은 것이 타당하다. 다만 초한 시를 얻어 그 전말을 완성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비록 고령의 나이이지만 12구를 얻기 위해 만 2년의 시간을 소모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그렇게 본다면 구국의 인물을 시화한 넷째 절도 이 기간에 지은 것으로 볼 개연성은 충분하다.

151-162구

欲說亂離事
 豈唯堪痛哭
 二陵出金椀
 萬世讐未復
 我今退田里
 幸脫全家屬
 何以能至此
 恩波偏沐浴
 八十衰朽臣
 何故忝勳錄
 但祝回太平
 聖壽享萬福

전란에 대한 일을 말하려니,
 어찌 통곡을 견딜 수 있으리오.
 선릉과 정릉의 왕릉이 파헤쳐졌지만,
 만세의 원수에게 복수하지 못했네.
 나는 지금 고향으로 물러났는데,
 다행히 온 가족이 화를 면했네.
 어찌 능히 이에 이를 수 있었던가,
 하해 같은 성은을 입었기 때문이네.
 팔십의 노쇠하고 병든 신하가,
 무슨 이유로 훈록을 더럽히리오.
 다만 태평성대가 회복되기를 축원하노니,
 성상께서는 장수와 만복을 누리소서.

위의 시구는 삶의 마침표를 앞에 둔 팔십의 衰朽한 노신하인 시적 화자가 임진란 7년을 되돌아보며 그에 따른 소회를 보여준다. 임진란이 종식된 지 7년이 지나고 이미 늙고 쇠약해진 시적 화자이지만 전란의 기억은 늘 감내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을 자아내게 하는 것이다. 그 중에도 선릉과 정릉을 파헤친 왜군의 만행은 신하로서 가장 큰 불충이었다. 만행을 자행한 왜군에 대한 복수를 갚지 못한 데 대한 신하의 불충과 한탄으로 시는 전개되고 있다. 이어진 네 구는 亦君恩을 보여준다. 강토를 잔악하게 유린했던 왜군이 물러난 후 돌아온 고향에는 화를 면한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전란의 현장에서 목도한 積屍·餓殍·波血의 처절한 참상을 생각하면 가족의 免禍는 하해와 같은 성은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이어진 네 구는 시의 대단원을 마감하고 있다. 앞 구에 이어 자신에 대한 성은을 밝히고 있다. 80의 쇠후한 신하에게 주어지는 공신 칭호¹⁸⁾는 오히

려 훈록을 더럽히는 일이라 하여 역군은을 우회적으로 표하고 있다. 역군은은 성상에 대한 축원과 바람으로 마감하고 있다. 태평성대의 도래와 성상의 장수·만복을 기원하는 것으로 대서사시의 종지부를 찍었다. 시·공간의 순차적 진행에 따라 서사를 구성한 후 시적 화자의 정회로 끝맺음을 하고 있다. 시 전체를 통해서 볼 때 시적 화자는 신하의 입장을 견지하며 시를 전개해 왔다. 그런 점에서 임진란 정황에 대한 실사적 포착이나 그에 따른 현장체험의 목소리가 현재의 자신의 위치에서 서사화한 것이다. 시의 마무리가 역군은과 축원으로 맺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IV. 나오며 - <난후행록>의 시적 특징을 대신하여

<난후기행>은 임진란 7년의 대전란 과정을 사건에 따라 순차적으로 서사한 5언 162구의 장편시다. 시의 구성은 난후 행적을 연대기적으로 전개하고 있어 시간적 추이에 따라 단락을 나눌 수 있다. 이를 근거로 ‘임진년(1592), 계사년(1593), 정유년(1597), 전란 종식 후(1599), 귀향 후(1605)’로 그 시점을 나누어 단락화했다. 각 단락의 서사적 전개 과정 속에 담긴 약포의 인식을 통해 <난후기행>이 지닌 시적 특징을 살피는 것으로 논의를 마무리한다.

첫째, ‘임진란 발발과 전황인식’은 분조로 나뉘지기 전인 어가의 호종 과정을 통해서 드러나는 역사의 현장과 그에 따른 약포의 전황인식을 보여준다. 내용상 3개의 소단락으로 나뉜다. 첫째 소단락(1-12구)은 임진란 발발과 파천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왜군의 거침없는 공세에 따른 급박한 전

18) 1604년에 忠勤貞亮扈聖功臣 칭호가 하사됨.

황, 그에 따른 갑작스런 파천의 시작 등에서 보여주는 심리적 긴장감은 임진란 발발의 시작을 생생하게 묘사했다. 둘째 소단락(13-26구)은 파천의 과정에서 겪는慘怛한 심정을 묘사하고 있다. 울분과 힘겨운 파천 과정을 서정과 서사의 조화 속에 효과적으로 형상화 되었다. 셋째 소단락(27-42구)은 임진강 방어와 관련된 내용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이 단락은 약포의 현실인식과 그 대응방안을 읽을 수 있는 부분이다. 현재적 상황과 드러난 사실에 대한 정확한 인지를 통해 문제 원인과 그에 따른 극복 방안까지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단락과의 특징적 일면을 보여준다.

둘째, ‘분조의 호종과 위난 극복 의지’에서는 분조를 호종하는 과정에서 겪는 고초와 국난 극복을 위한 계책, 그리고 노신하의 회한을 담아내고 있다. 내용상 3개의 소단락으로 나뉜다. 첫째 소단락(43-56구)은 힘겨운 분조 호종 과정의 사실적 묘사에 고통의 토로를 덧 씌어 놓았다. 이는 표면적으로 드러난 호종의 힘겨움 속에 노신하의 충정을 갈무리하여 시적 화자의 심중을 에둘러 말하고 있다. 둘째 소단락(57-68구)은 위난 극복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강화도로의 파천이 대승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훌륭한 계책임을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전의를 고취시켰다. 셋째 소단락(69-82)은 乘機大捷을 위한 계책이 무산된 데 따른 실망과 함께 다시 기약 없이 여정을 보여준다. 비록 역전을 위한 계책이 무산되고 다시 참혹한 전쟁터를 누벼야 하는 상황이 저절로 자탄을 불러일으키지만 이는 그 깊이 이상의 충정을 담아내고 있다. 『피난행록』이나 상소문을 보면 약포는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객관적 인식과 냉철한 판단에 따라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힘겨움의 토로나 자탄의 정서 뒤에 있는 약포의 의지도 함께 살펴야 한다.

셋째, ‘전황의 반전과 전장의 실상’은 기사년과 정유년의 전황을 보여준다. 사건의 전개 과정을 고려하여 기사년의 내용을 세 단락으로 나누었다.

계사년의 첫째 소단락(83-96구)은 새해가 접어들면서 명군의 파병으로 전세가 역전되는 상황을 보여준다. 그런 까닭에 明皇과 明將의 칭송이 주조를 이루고 있어 시적 화자의 직접적 체험에 따른 서사성은 약화된 듯하지만, 명군의 파병에 따른 평양성 수복과 같은 일련의 사건이 그 중심에 자리하고 있다. 둘째 소단락(97-106구)은 명군의 파병으로 전세가 역전됨에 따라 사건은 두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사건의 전개는 還都의 과정을 보여주는 史的 측면과 시적 화자의 역할에 따른 私的 측면으로 나뉜다. 史·私 양측면에서 각각 전개되면서도 시간은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특징을 보인다. 셋째 소단락(107-118)은 환도 후의 일을 시화한 것이다. 서울에서 목도하게 되는 백성들의 구체적 참상은 시 전체를 통해 유일하게 묘사되는 부분이다. 이는 임진란을 임금에 대한 신하의 입장과 관점에서 서사화했기에 백성에 대한 치자의 시각은 약화된 때문으로 보인다. 이는 <난후기행>의 서술적 시각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넷째 소단락(119-126구)는 해가 바뀌어 정유재란이 일어나 정유년(1597)의 상황을 보여준다. 왜군의 재침으로 인한 피해 상황을 간결하게 언급했지만 비극적 상황을 연상케 하는 시어를 배치함으로써 전장의 비극을 환기시키고 있다.

넷째, ‘난국 타개의 인물 표상’에서는 위난의 조선을 구해준 명황에 대한 感恩을 간단하게 밝히고, 이어서 각 방면에서 가장 뛰어난 활약상을 보인 구국의 장수를 열거했다. 시적 화자가 이 절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전쟁 종식에 있어 명군의 역할을 인정하지만 그 중심축에는 義起한 이 땅의 민중들과 忠情의 장수 및 병사들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다. 전쟁의 역사적 기술이란 서사성이 전쟁시의 일반적 특징인데 <난후기행>은 여기에 더해 구국 인물의 나열이 더해져 있다. 이는 전란이란 시대의 큰 아픔을 극복한 인물을 기리는 것 외에 새로운 시대의 희망을 보여주기

위한 노신하의 배려가 깔려 있다.

다섯째, ‘난후의 회억과 바람’은 임진란 종식 이후, 삶을 마감하는 시점에서 임진란을 회억하며 그에 따른 감회를 읊은 것이다. 노신하의 임진란 기억에는 여전히 감내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이 담겨 있다. 그 많은 전쟁 체험 가운데 선릉과 정릉을 파헤친 왜군의 만행을 들어 복수하지 못한 것에 대한 한탄은 시적 화자의 서술 시각이 어디에 있는지를 밝혀주는 대목이라 할 만하다. 가족의免禍에 대해 역군은을 표한 것이나, 태평성대의 도래와 성상의 장수·만복을 기원하는 것은 시적 화자가 군신의 관계에 입각한 신하의 입장에 따른 시각이다. 시 전체를 통해서 볼 때 시적 화자는 신하의 입장을 견지하며 시를 전개해 왔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역군은과 축원은 신하된 도리로서의 자연스런 마감이 되겠다. 이상으로 <난후기행>에 나타난 시적 특징을 마무리한다.

【참고문헌】

- 金洛眞, 「藥圃 鄭琢의 程朱學 수용 양상」, 『南冥學研究』24집, 2007, 83-108쪽.
- 김원준, 「임진란기 약포 시에 나타난 시적 형상화와 그 특징」, 『어문론총』72, 한국문학언어학회, 2017, 160-189쪽.
- 김원준 외, 「임진란기 전란 극복을 위한 약포의 대응 방식-임진란기 산문을 중심으로」, 『약포 정탁』, 예문서원, 2016, 187-228쪽.
- 김원준, 「詔使와의 次韻詩에 나타난 芝峯의 意識」, 『한민족어문학』 44집, 한민족어문학회, 2004, 230-269쪽.
- 김정운, 「정탁(鄭琢)의 『龍蛇日記』와 倭亂 극복 활동」, 『韓國思想과 文化』63집, 한국사상문화학회, 2012, 188-215쪽.
- 朴槿魯, 「藥圃 鄭琢의 文學에 나타난 憂國意識 -상소활동과 임진란체험의 시적 형상화를 중심으로」, 안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6, 1-173쪽
- 박명숙, 「藥圃 鄭琢 先生의 삶과 詩世界」, 『동양예학』31집, 2014, 135-179쪽.
- 박해원, 「임진왜란기 재상 정탁의 정치적 활동과 그 성격」,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15, 1-64쪽
- 여운필, 「藥圃 鄭琢의 삶과 詩世界」, 『한국한시작가연구』6, 한국한시학회, 2001, 53-81쪽.
- 이상필, 「壬亂時 在朝 南冥 門人의 活動 -藥圃·東岡·寒岡을 중심으로」, 『南冥學研究』2집, 남명학연구소, 1992, 187-203쪽
- 정병호, 「藥圃 鄭琢의 현실인식과 대응 -『藥圃集』所載 上疏文을 대상으로」, 『동양예학』31집, 2014, 109-134쪽.
- 정우락, 「『고대일록』에 나타난 서술의식과 위기의 일상」, 『퇴계학과 한국문화』44집, 2005, 157-186쪽.
- 황만기, 「정탁(鄭琢)의 병법 수용 양상 연구」, 『영남학』25호, 2014, 313-337쪽.

Abstract

Yakpo(藥圃)'s Perception of the Imjinran(壬亂) through Poetic
Development in <Nanbugibaeng(亂後紀行)>

Kim, Won-jo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Yakpo's (藥圃) perception of the *Imjinran* (壬亂, Japanese of Korea in 1592) and poetic features in *Nanbugibaeng* (亂後紀行). For this purpose, poems were composed according to temporal changes, and poetic features were identified. Regarding the outbreak of the *Imjinran* and the perceptions of the "war situation," the state of history following the royal carriage and crisis solutions for war were examined. Regarding *Bunjo* (分朝) and the will for a "crisis solution," it was difficult to follow *Bunjo*, plans to overcome the national crisis, and the old liege's remorseful will. presented the war situations in Gyesanyeon (癸巳年) and Jeongyunyeon (丁酉年). "Characters Resolving a Crisis" revealed the whole story of the *Imjinran* in three dimensions by listing the most outstanding commanders in each field. Regarding "The Memories and Hopes after War," Yakpo's memories and feelings were written when he ended his life after the *Imjinran* ceased.

Key Word: Yakpo (藥圃), Nanbugibaeng (<亂後紀行>), Pinanhaengrok (<避難行錄>), description, Imjinran (壬亂)

김원준

소속 :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조교수

전자우편 : kimWj1004@ynu.ac.kr

이 논문은 2017년 7월 19일 투고되어
2017년 9월 3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7년 9월 8일 게재 확정됨.